

2026.06.07. 세빛교회 주일 1부 예배
참된 선택과 결단을 위한 여호수아의 유언
본문: 여호수아 24장1-15,24-31절
김상민 담임목사님

<서론>

▶오늘은 여호수아서 제일 마지막 장을 읽으며 유언을 담고 있는 내용이다. 유언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참된 선택과 결단을 요구하면서 중요한 말씀을 주고 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응답을 받아야 한다. 여호수아는 애굽에서 노예였던 자였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본 자이다. 그 은혜를 보았고 한 평생 주신 언약을 붙들고 따라 이루는 응답을 직접 받았다. 이제 110세까지 그의 일생이 응답 속에서 마지막을 앞두고 모든 자들을 세겜에 부르고 유언의 말씀을 주는 본문이다. 그동안 통치 속에서 잘 인도 받았지만 이후가 우려되어서 마지막 말씀을 주며 결단과 추구를 통해 유언으로 말하는 것이다. 유일하고 마지막인 말씀을 통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려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며 유언을 남기는 것이다. 누구나 한번은 이런 길목에 선다. 여호수아는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소원을 전달한다. 유언은 남은 자들에게 무게가 다르다. 우리도 마지막에 무엇을 남겨야 하는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고 살도록 세워야 한다.

<본론>

1.여호수아가 절감했던 불신앙과 그 결과

▶여호수아는 애굽에서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보았다. 과거의 노예로서 소망과 미래도 없던 매일의 고통과 절망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구원하실 것을 알게 하셨고 행하셨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애굽에서 건져내어 맹세한 땅으로 데려가신다고 말씀하셨고 10가지 재앙을 통해 백성을 건져내셨다. 피 언약을 통해 급하게 해방되는 역사를 이루셨다. [출12:51]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노예의 고통 속에 살던 민족이 해방된 것이 꿈 같고, 홍해를 만나도 홍해를 가르게 되는 그 흥분 속에 이들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 드렸다. 그러나 이 흥분은 잠시 이후 3일째부터는 원망이 시작되어 조금만 어려워도 불 신앙했다. 원망의 절정인 가데스바네아에서 정탐꾼의 불신앙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다. 하나님은 이 일로 40년의 광야의 시간을 보내게 하시며 한 세대를 다 바꾸신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끝까지 살아서 이 다음세대를 데리고 들어간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완고하게 불신앙 하는지를 보고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실감한 자들이다. [히3:15-19]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앙 했다. 우리도 이렇게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주시는 말씀이다. 여호수아는 너무 잘 알고 있다. 우리도 이 말씀처럼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심각한 것은 삶 속에서도 불신앙 하면 안 되지만 더 지나면 하

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더 완고하게 된다. 이것이 더욱 심각한 것이다. 우리는 완고해지면 안 된다.

2.여호수아가 확인했던 하나님의 언약의 이루심

▶여호수아는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셨다는 것을 확인 했다. [수24:2-14] 그들 앞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1)수24:2-5절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어 오실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셨다.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애굽에 노예로 있던 백성들을 건져낸 것이다. 우리도 우상 숭배 속에 살던 자들이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게 된 것이다. [엡2:1-3]

(2)수24:6-10절 -하나님은 이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셨다. 요단 동편의 강국을 이기고 기업을 차지하게 하시며 또 발람의 저주를 막으시고 오히려 축복하시며 인도하셨다. 하나님은 우리도 살아가는 길에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응답하시는 것이다. [로14:16-17] 주님이 영으로 보혜사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다.

(3)수24:11-13절 -가나안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고 말씀하신다. 너희의 칼과 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신다. 현실적으로 안될 것 같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내셔서 우리를 통하여 가나안을 정복하듯 이 땅을 살릴 영적 정복, 가문의 정복, 세상을 살리는 세계 복음화 할 능력으로 증인 되게 하신다. [행1:8] 여

호수아의 유언에서 고백하던 이 증거와 간증이 우리의 간증이 되길 원하신다.

3.나 자신과 후대를 두고 내려야 할 선택과 결단

▶이런 은혜를 받은 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이들에게 여호수아는 올바른 선택과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민14장 여호수아는 갈렙은 지금까지 바른 선택과 결단을 해 온 사람이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하여 주신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 이제 다시 믿음의 결단과 선택을 고백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촉구하고 있다. [수24:15] 결단과 선택에는 분명한 긴장감이 담겨있다. 눈에 안 보이지만 세상의 죄와 연약함이 있다. 우리 속에 있는 죄성과 육신과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속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길 놔두질 않는다. 사단은 성도들을 유혹하고 방해한다. 언약을 놓치게 하며 세상의 추세를 따르도록 역사한다. 다음세대가 무너지게 만든다. 성도는 여호수아처럼 언약을 붙들고 참된 결과와 선택을 해야 한다. 여호수아 당대에는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다짐한다. [수24:31] 그러나 이후에도 이 선택과 결단이 전달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사사시대를 만나게 된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도 우리의 일생을 통해 우리 후대들을 세워가야 한다. 곧 우리 교회 35주년이다. 특별히 믿음을 다짐하고 후대를 세워가는 사명을 감당하는 축복의 시간 되길 바란다.